

## 단암전자통신(주)

무선이동통신기시국 핵심기업의 성장통신원기

**단**암전자통신(주)는 1982년 창립되어 1980년대, 유선기지국(TDX)에 소요되는 핵심 회로인 HIC의 개발·생산을 통하여 사업의 기반을 다짐과 함께 우리나라 전화기 보급에 일조를 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는 무선이동통신 기지국의 핵심 장비인 RF 증폭기와 이동전화 중계기, DC/DC CONVERTER, RECTIFIER, ADSL MODEM등을 생산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견통신업체이다.

단암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전년대비 242% 증가한 1,402억원의 매출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최고 품질의 제품을 바탕으로, 고효율 RF증폭기, 혼성집적회로(HIC), 지하음영 지역용 중계기, ADSL MODEM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등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업계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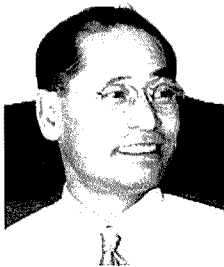
단암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분야와 생산제품은 다음과 같다.

- RF TECHNOLOGY : 이동전화 중계기, AMPLIFIER, GPS CLOCK
- NETWORK TECHNOLOGY : ADSL MODEM, VDSL SYSTEM
- POWER CONVERSION TECHNOLOGY : CONVERTER, RECTIFIER
- MICRO CIRCUIT TECHNOLOGY : HIC

단암은 전통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통신시장에서 최적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는다는 평과 함께 품질, 기술력, 고객서비스 부분에서도 업계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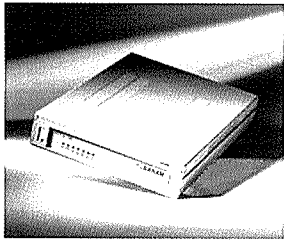
이는 단암 경영진들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실질적 결과로 현재 단암은 이기운 사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기운 사장은 업무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간 중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그의 철학은 경영에 그대로 반영되어 작게는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교육훈련, 장학투자, 처우복지 강화 등을 비롯하여 나아가 지역문화 육성, 고용증대를 통한 기업 활동의 사회 기여까지 그 관심 부분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에 있어서 '일류의식'과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는 세계 최고 기술·품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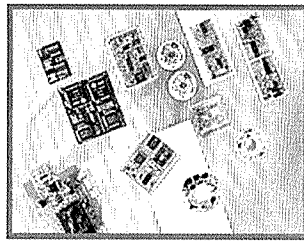


- 대표 : 이기운
- 본사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00-3
- TEL : 031-452-0191
- FAX : 031-455-7864
- http://www.danam.co.kr
- 주요생산품목 : 유무선통신장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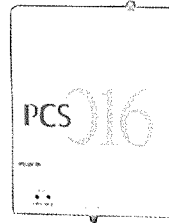
Hybrid IC, SMPS, RF부품  
류, LPA, HPA, TRS 단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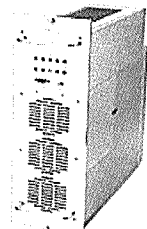
<ADSL MODEM>



<HIC>



<중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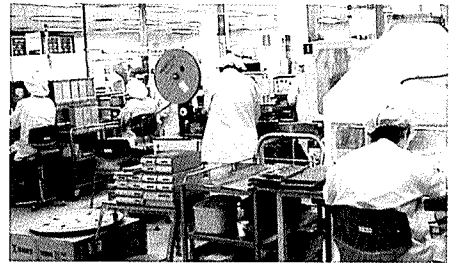
<증폭기>

제품을 만들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단암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는 연구개발 활동은 다른 어떤 업체들 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87년 HYBRID IC 업계 최초로 기술개발 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매년 매출액 대비 10%에 육박하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하여 통신용 DC/DC Converter나 IMT-2000용 GPS Clock 등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을 비롯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나 삼성전자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CDMA용 HPA/LPA등을 개발 하였다. 또한 ADSL MODEM, VDSL SYSTEM 등의 제품을 출시,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열어가는 선두 업체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 나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IMT-2000용 소형 중계기, IMT-2000용 정류 시스템 등의 개발과 함께 신규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런 연구활동과 더불어 품질 개선과 가격 경쟁력 확보, 첨단 기술 확보 등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단암은 미국 실리콘 벨리에 '단암 USA'를 설립하여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는 전초 기지로 활용하고 있고, 필리핀에 현지 공장인 '단암 필리핀'을 설립하여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품질 및 공정 개선 측면에서도 ISO 9001, ISO 9002, 100 PPM 품질인정, ISO 14000, QS 등 다양한 품질 인정을 객관적으로 인정 받았으며 현재는 지속적인 품질개선



및 업무 개선을 위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6 SIGMA'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단암은 KOSDAQ 등록을 통하여 기업을 공개 하였고, 올해 5층 규모의 최첨단 시설의 공장을 신축하는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대내적으로도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단암은 올해 최소 1800억원의 매출과 200억원 이상의 경상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는 현재 HYBRID IC의 대규모 미국 수출이 예상되고, 망 고도화에 따른 고효율 RF증폭기와 광 전송기기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무난히 달성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단암은 2005년까지 WORLD CLASS 제품 5종 이상 보유, 특허기술 50종 이상 보유, 수출비중 30% 이상 확대 등 구체적인 목표와 VISION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단암은 현재까지의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사업분야를 향후 데이터 통신용 모듈과 광통신분야의 전송장비로 다양화하여 회사성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